<Room of Death>

Player: 뭐지 여긴…? 이상한 곳이다..

Death: …

Player: 저기요?

Death: …

Player: (뭐야 왜 대답이 없지?) 여기가 아닌가..?

Death: 죽음!

Player: 아 깜짝이야!

Death: 죽음

아직…아직…난 답을 얻지 못했다…

너…

**“죽음이란 무엇인가”(알쥬? UI 스윽 싹 ㅇㅋ?)**

Death: 죽음…그 미지의 영역..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는 질문. 죽음이란 대체 뭐지? 누군가는 죽음이 완전한 끝이고 우린 그저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마치 텔레비전 선이 끊기듯이 뚝. 의식은 이어지지 않고…우린 죽음을 인식조차하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로 돌아간다고...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두렵지 않은가. 내가 나를 인식조차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저 무. 난 그 무가 두렵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어느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두려움이 몰아쳐. 마치..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듯이.. 그런데 그 두려움이.. 더 궁금하게 한다. 만약..만약 죽음 뒤가 무가 아니라면… 그 뒤엔 뭐가 있을까..? 영혼은 있을까? 신은 있을까? 사후 세계는? 환생은?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다는데 혹시 우리 영혼은 블랙홀로 들어가 사후로 가는가? 혹시 영혼 또한 지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영혼과 신, 인간도 결국 우리 행성에 국한되어 있는 세계는 아닐까? 온 우주를 창조한 절대자가 있는가? 우리는 그가 빚은 피조물인가? 혹시 혼의 세계에서 죄를 지어 육신의 감옥에 갇힌 건가? 대체 죽음은 무엇인가..?

기독교나 천주교는 사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이 신앙과 고해성사를 통해 그 죄를 덜고 죽은 뒤에 죄가 없는 자는 천국으로, 죄가 무거운 자는 지옥으로, 그리고 그 정도가 애매한 사람은 연옥으로 간다고 하지. 천국에서는 완전한 행복과 사랑을 누리고 지옥에서는 끝없는 고통과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승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남은 죄를 덜고 천국에 다가간다고 한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오는 최후의 심판에서 영혼들은 영원히 있을 곳을 정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불교는 어떨까? 불교에서는 죽음 뒤에 윤회가 있다고 믿는다. 육도윤회, 각자 업에 따라 6개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설이다. 가장 고통스럽다는 지옥도, 굶주림의 고통이 크다는 아귀도, 싸움과 증오가 넘치는 아수라도, 동물이나 벌레로 태어나는 축생도, 사람의 인도, 천상의 천도로 이루어진 것이 육도이다. 그 중 인도와 천도를 제외하고는 불법을 접할 기회가 없다. 살아있을 때 선업을 많이 지으라는 것도 그 때문이지. 불교는 생로병사 자체를 고통으로 보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을 중시하는데, 즉 불교의 죽음은 고통이자 또 다른 생의 시작이다. 불교는 나 자신의 실체가 없다고 하지. 나는 그저 어떠한 연으로 빚어진 연기의 집합체일 뿐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까지 들으면 죽어서 업대로 태어나는 것이 윤회라면 그 업의 주체인 ‘나’가 있을 것인데 혼란스러울 있다. 하지만 ‘나’라는 주체는 없는 것이고 죽은 후 남는 것은 ‘업’일 뿐이며 그 ‘업’에 따라 또 윤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는 죽음의 비밀을 영원히 알 수 없지.. 죽음 뒤의 세상은 죽은 자들만이 알테니….

…. 그럼에도… 죽음에 대한 사색은… 의미가 있지.

죽음은… 삶을…더 밝게…..하기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한 없이 작아지기에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다. 광활한 우주의 크기와 짧디 짧은 인간의 삶. 그리고 죽음의 불확실성. 그것이 너의 삶이 무의미 하다 느끼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조건 아래,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넓은 우주 안에 생명의 숨을 쉬는 건 우리 뿐이다. 우리의 생명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며 억만분의 일의 확률의 귀한 가치를 지닌다. 죽음 뒤가 불확실하기에 우린 선택을 하게 된다. 죽음 뒤를 최악의 경우 무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절망감을 느끼느냐 아니면 실존을 느끼느냐는 너의 선택이다. 우리는 죽음에서 실존을 느껴야 한다. 인간은 필멸하기에 보다 더 행복해지려 하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남기고자 한다. 그렇다면 죽음은 절망보다는 동기가 될 것이며 그 동기는 우리가 살아 느끼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진정한 가치를 따르게 할 것이다. 죽음의 유용함을 인식함으로서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죽음의 실체…언젠가는 알게 되지 않겠는가? 하하하하하

자 플레이어, 이제 너의 차례다. 너의 눈에 죽음은 무엇인가?

**플레이어 대답**

음? 흐흐흐흐 좋은 대답이구나.